

### 당신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교실이 있었다라면

2019년, 튜링연대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와 청소년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만남'이란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 당시는 스쿨미투로 트위터 상에서 새로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트위터에선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다. 이 두 집단이 마주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문제는 당시 트랜스젠더 의제가 유포되는 방식이 처음 보는 사람들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트랜스색연필젠더' 등). 또 트랜스젠더와 래디컬 페미니스트 사이 충돌도 심하던 때다. 이 속에서 많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자연히 '래디컬'의 편에 서게 됐다.

그러던 와중 한 30대 쯤 되는 트랜스젠더 지지자가, 10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싸우고선 "너네 같이 멍청한 애들 이랑 싸우느니, 우리 10대 트랜스젠더를 위해 활동하는 튜링연대에게 후원해야겠다"라며 우리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이런 상황을 직접 보고, 10대 래디컬 페미니스트 또래와 부대끼 10대 당사자의 삶을 걱정을 했다. 그래서 튜링연대가 나서서 10대 트랜스젠더와 대화를 나눌 10대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10대 트랜스젠더와 래디컬 페미니스트끼리 서로 궁금하고 말하고 싶었던 점을 톡 터놓고 이야기 나눠보자고.

반응은 뜨거웠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획이니 다들 놀랐다. 걱정도 우려도 있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란 반응이 많았다. 인터뷰이를 실제 인터넷 상에서 섭외해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나 트랜스젠더나 둘다 10대로서, 학교와 가정, 또래 집단에서 경험하는 성별이분법과 불화하는 존재들 아닌가. 서로에게 무시무시한 존재로서가 아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로서 대화하니 말이 잘 통했다.

사실 그 날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던졌던 질문, 왜 트랜스젠더가 되는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 하는 이유 등을 만족스럽게 답했다면 그건 아니다.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키배'를 뜯 때보다 못한 설명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오히려 성공적이었다. 그때 '래디컬'로 나온 분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20대에 성인 되고 갑자기 안 어울리는 화장하고... 그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어디 잡혀갈까봐 걱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랑 같은 나이 또래인데, 우리처럼 학교에서 성 고정관념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 트랜스젠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퇴하는 트랜스젠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친구같고 재밌었어요. 우리 편견 같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런 2019년을 보내온 우리였던만큼, 2020년의 굶직했던 사건들에 더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트랜스젠더에게 트랜스젠더'로서' 아무개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학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함께 또래와 급식을 먹고 운동장을 걸어다니며 수업을 들을 학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트랜스젠더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닌 10대라는 역사 속에서 서서히 자신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눌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불충분한 질문과 대답을 나누더라도 또래로서 공통의 경험과 유대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악순환

트랜스젠더를 둘러싸고 당시 온갖 말이 쏟아졌던 이유를 단순히 '혐오자'한테 돌릴 수 없는건 바로 이 점이다. 즉 각 진영 다 말은 많았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심지어 트랜스젠더들조차도, 트랜스젠더와 하나의 세계를 공유할 수 없었다. 단적으로 말해보자. 변희수 하사 사건과 숙명여대 A 사건 이후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뜻 밖의 주장이 솔하게 쏟아졌다. 바로 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왜 괜히 언론에 공론화를 시켜 숨어 있는 우리를 욕 먹게 만드냐?"는 주장 말이다.

말 자체만 보면 지독하게 한심한 사람이나 할 소리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치고 자기혐오와 자기검열을 하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한심한 소리를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 혹은 다른 트랜스젠더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여건을 갖추면 많은 이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떠나지 않던가. 트랜스젠더로 여겨지는 '상태'는 당사자에게도 '거쳐가는', '벗어나야 하는' 상태로 여겨진다. 많은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위해, 혹은 '트랜스젠더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학교를 자퇴한다. 또는 학업을 마치고 돈을 번 뒤 트랜지션을 시작하거나. 트랜스젠더로 살기 위해선, 트랜스젠더라는 시기를 빠르게 지나치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말마따나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어디에' 존재하기 위해선 자신을 숨기거나 부정해야 하는 현

실적 상황이 있다. 이 속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임시적인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임시적인 장소이고, 아직 '트랜스젠더'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만 남는다. 그러니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지저분한 경험이 남게 된다. 그 속에서 당사자조차 다른 트랜스젠더와 이어질 이유를 찾지 못한다. 혼자 힘으로 트랜스젠더 상태를 '탈출'하는데 급급한다. 새로 들어온 트랜스젠더들은,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은 좀 어딘가 상태가 좋지 못한 불안정한 벗들 외에 커뮤니티에서 좋은 벗을 사귀기 어렵다. '탈출'에 성공할만큼 역경을 이겨내고 삶의 경험이 축적된 트랜스젠더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 각자도생의 윤리,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신, 또 "왜 괜히 언론에 공론화를 시켜 숨어 있는 우리를 욕 먹게 만드냐?" 따위 말만 남는다.

## 유튜브, 트위터, 오픈채팅방을 지나 되돌아가자

대부분 사람들에게 전체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첫 장소인 '학교'에서부터 소외, 불화하는 경험. 학교와 또래 그룹에서 자퇴를 하거나 혹은 상처를 받은 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장인 '커뮤니티'도 건실하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의 폐해를 가장 온 몸으로 체감하는 집단이 우리는 10대 트랜스젠더라고 봤다. 우리는 그래서 유독 트랜스젠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2017년 툭립연대를 시작한 이들도 대다수가 학교 밖 청소년 트랜스젠더였다. 활동도 주로 교육 문제와 당사자 커뮤니티 형성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콘텐츠가 전무하던 시기,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트위터, 오픈채팅방에서 콘텐츠와 소통 채널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자조모임을 하고 가시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의 한계를 느꼈다. 기존 커뮤니티의 한계(친목 이상이 없는 내용, 그 과정에서 소진되는 효능감)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제도 중심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웠다. 제도 변화는 결국 당사자 조직화와 담론 형성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비해 커뮤니티는 "왜 괜히 나서서 시끄럽게 하나", "트랜스젠더 인권활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할만한 것 아니냐" 반응이 주된 상황이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당사자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효능감을 높여야 했다.

그래서 당사자 활동가들이 어느덧 3년의 시간을 지나 대학생이 되던 2020년,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우리가 교실을 만들자고. 더 이상, 트랜스젠더에게 교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트위터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만족하지 말자고. 또 교실을 떠나 갈 곳 없어 찾아온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오픈채팅방을 마련해주는 일에 만족하지 말자고. 운동이 인권을 외치는 장소는 대학, 토론회, 기자 앞, 국회만이 아닌 당사자 바로 곁이어야 한다고. 트랜스젠더'임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다양한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커뮤니티로부터의 변화의 가능성이 쌓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그래야 전체 사회에서의 투쟁 내용이 풍부하게 된다고. 무엇보다 학교 밖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활동해온 경험을 잊지 말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툭립교실을 기획했다.

## 자퇴 후, 교실에서 병철이를 만나다

우리는 단기 실험성 프로젝트로 3개월간 툭립교실 사업을 기획했다.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굿즈를 텀블벅에 올려 300만원 가량을 모금했다. 선생님들도 구했다. 트랜스젠더 의제에 관해 전혀 모르던 이도 우리의 글만 보고 찾아왔다.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긴 했지만, 영등포 민중의 집에 수업을 진행할 장소도 마련했다. 그런데 학생을 모으는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우리는 3-5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봤지만 그조차 모으기 어려웠다. 그래도 차츰 차츰 모아 시작하려던 찰나, 툭립연대가 운영하는 당사자 채팅방에 어떤 당사자가 갑자기 들어와 "저 자퇴하고 싶어요.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라며 자기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우린 개별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다급하게 외쳐 개인 특으로 옮겨 전화로 상담을 해줬다. 지방에 사는 청소년 FTM(이하 '반죽이')이었고, 가정, 학교, 주위 환경 모두 열악한 이였다. 학교를 벗어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퇴 절차와 진로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 하더라. 나도 검정고시 출신자고,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 대학에 간 만큼 전화로 7시간동안 그 이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런만큼 서로 공감가고 겹치는 면이 많았다.

신기했던건, 반죽이는 지방에 살아서 트랜스젠더에 관해 알아볼 채널이 인터넷 밖에 없었다. 정말 모든 콘텐츠를 다 찾아봤다고 한다. 청소년 관련 콘텐츠는 없어 아쉬웠는데, 나와 툭립연대가 만든 콘텐츠가 있어 몇십번씩 돌려봤다고 한다. 그 콘텐츠는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관해 만든 애니메이션이었다. 주인공 이름이 내가 더빙을 한 MTF캐릭터 '병철이'였다. '병철이'를 현실에서 만나니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란다. 가슴이 뭉클했다. 울먹이며 전화하던 그 이가 전화를 마칠 때쯤 깔깔 웃고 있어 마음이 놓였다. 바로 뒤, 그 이에게 툭립교실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원래는 서울에서 진행을 하지만, 온라인 줌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올라올 수 있는 때에는 툭립연대에서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그도 함께 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주 4-5일 검정고시 정규과목을 요일별로 강의하는걸 기획했다. 주말에 '교양 수업'이란 이름으로 피크닉을 가거나, 교양과 진로에 관한 수업을 하는 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지만 반죽이가 오고, 또 이태원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만큼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별 전담교사를 배치해 격일 간격으로 생활과 학업이 잘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추는게 중요한만큼 딱딱한 검정고시 중심 수업보단 교사 재량으로 수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했다. 수업에선 흥미와 재미 있는 내용을 가르쳤다. 검정고시 대비와 자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ebs 인터넷 강의를 꾸준히 수강, 필기하도록 지도했다. 반죽이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세세하게 학생과 유기적으로 접촉하는 경로를 덜 고민했을 것이다. 반죽이가 준 도움이 컸다.

## 대학생 친구를 만나고, 벤치는 책상이 되고 미용실은 학교가 됐다

그렇게 교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총 5명의 학생과 수업을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어갔고, 주마다 한번씩 오프라인으로 여기저기를 놀러갔다. 또 심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 심리학과 대학원생을 초청해 진로 강연을 진행했다. 별다른 굴곡은 없었다. 오히려 예상 외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참여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필기하고, 문제를 풀어오는 일에 다들 열성이었다. 특히 반죽이가 그랬다. 반죽이는 이전까지 공부를 한 경험이 적은데도 생각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 학생과 학생들도 전화상으로 서로 친목을 주고 받으며 가까워졌다.

선생님과 학생의 소통도 원활했다. 반죽이는 거의 매일 전담교사인 나와 소통하고 고민을 나눴다. 나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과도 소통하고 문제를 먼저 물어보며 친해졌다고 한다. 공부는 물론 생활을 하며 부딪히는 난관을 함께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반죽이한테 제일 큰 난관은, 비협조적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자퇴를 설득할지, 이후 학업을 위한 지원을 이끌어낼지 등이었다. 스스로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다. 이를 통해 학원비를 지원 받는게 반죽이의 목표였다.

반죽이는 증명을 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반죽이와 함께 전원이 검정고시에 통과했다. 그리고 자퇴도 학원을 가는 일도 모두 허락을 받았다. 학교를 그만두는 경험은 물론 반죽이에게도 큰 상처였다. 트랜스젠더가 받는 낙인, 그러니까 "재는 공부할 감량이 안돼. 그래서 자퇴하고 인생을 맨날 포기하고 도망치는거야"라는 낙인을 생각할 때 말이다. 그러나 반죽이의 자퇴는 일방적으로 밀려나는 과정으로만 기억되지 않았다. 반죽이는 자퇴를 다른 가능성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기억한다. 그 여정의 첫 시작을 난생 처음 만났지만, 친숙한 벗들과 함께 떼며 스스로 공부해보고, 성취해보는 소중한 경험도 가졌다.

반죽이가 한 말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톨립교실과 선생님을 만난 덕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성씨는 정말 이중적이예요. 어떨 땐 존경스럽고 든든한 어른인데, 또 어떨 땐 그냥 너무 편한 친구 같아요. 제가 대학생 친구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제 주변에 자퇴한 애들은 다 막 살고, 그리고 어른들은 절 도와주지도 만나주지도 않고 늘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덕분에 한 번이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남길 수 있었어요."

톨립교실이 끝나고, 반죽이는 학원에 등록해 대학을 준비했다. 하지만 학원에서도 학교와 같은 차별과 소외를 겪고, 또 부친이 지원을 끊어 반죽이는 공부를 그만뒀다. 반죽이만큼은 톨립교실이 끝난 이후에도 연락을 잇고 공부를 코치해줬던 기억이 있다. 그런 반죽이만큼 공부 몰래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했다. 반죽이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우리가 반죽이에게 느끼는 미안함이 더 컸다. 미안해 하는 모습마저 미안했다. 그래서 같이 진로를 탐색해주었다. 때로 서울에 불러 밥을 사주고 고민이 있을 때면 늘 벤치에서 오랜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집구석이 싫어 혼자 나와 떠돌던 벤치인데 외롭지 않아 기쁘다던 반죽이의 말이 생각난다. 결과적으로 반죽이는 미용학원에 등록해 진로를 세우고 있다. 언젠가 반죽이와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한성씨와 톨립교실 대학생 분들은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모습을 보고, 내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삶을 만들면, 그것만으로 대학에 간 것만큼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 2023년, 이제는 영웅이 아니라 벗이 필요한 때

2020년, 용기 있던 두 인물의 분투와 가능성이 더 힘을 얻지 못하고 아쉽게 마무리 됐다. 여전히 가슴에 아프게 남는다. 그리고 2023년 오늘날 그들이 제기한 치열한 질문의 무게에 비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운동은 다소 미진하다. 절대 그 두 인물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다. 트랜스젠더 사회가, 그리고 전체 사회가 두 트랜스젠더 영웅이 던진 질문과 가능성을 받아 안을 장소와 여유가 부족했던게 문제다.

그런 면에서, 2020년을 생각하면 '만약'이란 말이 입가를 맴돌곤 한다. 만약, 2019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트랜스젠더와 래디컬 페미니스트 청소년이 만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만약 2020년보다 이른 시기에 그 둘은 물론 다른 아무개와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젠더가 만날 수 있는 교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2020년

이 더 늦게 찾아와서 군대와 대학에서 '여기에 트랜스젠더가 있다'고 말해도 당신들이 영웅이 되지 않아도 됐을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당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부터 우리가 더 든든한 벼로 서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완벽한 때는 없다지만, 단지 대학과 군대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삶에 감사하던 소박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눈 영웅들, 그리고 그들의 비극을 거치고서야 우리는 뒤늦게 새로운 트랜스젠더 시민의 형상이 시급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톨립교실은 트랜스젠더 운동에 큰 의미로 남아있는 2020년에 겹쳐 진행한 사업이다. 어느덧 그 해가 지난지 3년이 되는 해다. 그런만큼 톨립교실의 교훈을 되새김질 하는 일 자체가 한편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다. 교실 후원 사업 기획을 하던 날, 톨립연대 친목모임이 같이 진행됐었고 그 날 변희수 하사도 놀러왔던걸 기억한다. 두 손을 잡고 용기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도 옆에 있겠다는 말을 한걸 기억한다. 그런만큼 부채감과 회한을 무겁게 느꼈다. 그 사건의 여파로 톨립연대 활동가들도 많이 지쳐 도피하듯이 마땅한 사업을 못하고 있었다. 톨립교실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도 버거웠다.

2023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금 못 다한 숙제처럼 톨립교실을 평가해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2023년, 다시 교실 사업을 기획한다는건 어떤 의미일지 곱씹었다. 조용한 듯 보이지만 그때만큼이나 여러 곳에서 특히 성소수자 교육현장에서 후퇴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부터 무엇이더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테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영웅의 기량에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없다. 우리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여럿 겪었다. 특히 이번 분기는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2년이 되는 시기라는 점을 볼 때 더 그렇다. 조용한 듯 보이는 지금 2023년이야말로 행동할 때다. 이제 다시는 영웅을 세우고 기다리지 말자. 되돌아갈 때다. 우리가 가야 할 때다. 그들이 맴도는 벤치로 되돌아가 그들의 벼이 되어야 할 때다. 우리의 벼이 될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우리와 그들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나야 할 때다.

## 필자 소개

###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톨립연대

톨립연대는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 모임입니다. 당사자와 지지자들이 2017년부터 준비모임을 결성해 2020년 정식 출범 이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소통방 운영, 정기모임, 인터뷰 등 네트워킹 사업과 기고, 언론 대응, 토론회를 통한 가시화 사업,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필요와 트랜스젠더가 직면하는 차별적 현실을 파악하고 담론과 실천의 차원에서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가고자 실험적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검정고시 교실 '톨립교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 [blog.naver.com/youthtranskor](http://blog.naver.com/youthtranskor)

이메일: [youthtranskor@gmail.com](mailto:youthtranskor@gmail.com)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youthtranskor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616844>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교실, 톨립교실 소개글: <https://tumblr.com/50565fc9-0254-4b82-9265-3b2050c168ed>

50565fc9-0254-4b82-9265-3b2050c168ed

-변희수 하사와 숙대 합격생이 서로에게 쓴 손편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862.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862.html)

-톨립교실 참여학생과의 인터뷰 <https://blog.naver.com/youthtranskor/222630026466>

-청소년 트랜스젠더와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만남 <https://blog.naver.com/youthtranskor/221571820737>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을 되짚어보며

정우재 (로자, 노동·정치·사람 청년연대팀)

### 우리가 느꼈던 ‘해방감’들, 그리고 그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우리에게 ‘해방감’을 안겨준 사회운동의 흐름을 돌아본다. 그 즈음, 우리 사회 속에서 한동안 잊혔던 페미니즘의 이야기들이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 퀴어, 장애인,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소수자들까지, 각자의 벼랑 위에 선 사람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느꼈다. 우리가 체험했던 것은, 미국의 흑인 페미니즘 활동가 벨 훅스가 말했던 것처럼 일종의 ‘영성’이었다. 이는 즉 공동체 내에서 공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어떤 따뜻함과 고무감들이었던 것이다.

소수자들이 서로의 피해사실들에 대해 말하고 위로하는, ‘자조모임’이라 할 만한 공간들이 여럿 생겨났다. 우리는 여기에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를 되새겼다. 이 말인 즉슨,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것이 왜 폭력인지조차 규정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여기에 ‘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책임이라는 것까지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런 자조모임 성격의 공간과 운동들은 사람들을 오래 잡아 둘 수 없었다. 각자의 경험에 대해 말하며 위로하고,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 너머의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러 말하기 모임, 공부모임들에서 동지들을 만나 위로를 받고 돌아온 그 다음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도 일상은 변해 있지 않았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 학교,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소수자들의 말하기를 은폐하거나 공격하려는 경향이 사회와 대중들 사이에서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백래시(backlash)라고 부를 수 있을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 개인들은,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조롱당하고, 힐난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상적 공간들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자 길을 잃었다. 이렇게 고립된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운동을 떠나기 시작했다. 자조모임의 운동 그 다음을 상상하지 못하자 드러난 한계였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로 다시 돌아가보자. 우리는 과연 ‘개인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에 집중하는 만큼,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에도 집중했는가? 우리는 사적인 경험으로 치부되던 일들이 사실은 사회구조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론장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정치적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성소수자 운동 내부에는 오랫동안 성소수자 권리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고 지키는 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운동들을 떠올려 보아도 그렇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운동이 확실한 목표를 갖고 이를 동력 삼아 나아가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소중하다. 하지만 운동은 그 운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주체(사람)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시민사회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기 힘든 방식, 가령 국가와 의회정치의 영역에 운동의 입장을 호소하는 방식의 운동만으로 관철을 까? 더구나 의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제도정치 속 여당과 야당이 모두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운동을 이루는 주요한 관심과 힘들이 이런 소극적인 운동방식으로만 모인다면, 우리 운동은 살아남고 버텨 나갈 수 있을까?

### 주체와 공간, 그리고 목표가 있는 운동을 위해

앞서 말했듯 운동은 스스로 운동의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주체), 그 사람들이 머무르고 살아가는 공간, 그리고 그 운동의 목표라는 세 가지 지점으로 이루어진다.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금 일어난 페미니즘의 유행을 통해 서울과 지방 도시 여러 곳들에서 조직된 자조모임 성격의 운동들은 주체와 공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공유하는 것 다음 단계의 명확한 목표를 찾기 어려워 했다. 다른 한 편으로, 제도화와 입법 투쟁에 집중하는 운동의 예는 각 소수자 주체와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쉽사리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오늘날 백래시의 흐름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과 시민사회 안에서 성소수자 청(소)년 당사자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 활동할 거점 공간들은 특히 지역에서 빠르게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전 운동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소수자 청(소)년 당사자와 사회운동의 주체들이 일상, 그리고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 위에서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안적인 실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노동·정치·사람 청년연대팀은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툴립연대에서 2020년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검정고시 교실 사업 '툴립교실'의 사례에 주목했다. 우리는 '툴립교실' 사업에 교사와 학생으로 참여한 이들이 제도권 바깥에서 성소수자 교육 운동을 직접 일궈내며 효능감을 가졌고, 이후 지금까지도 운동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활동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노동·정치·사람 청년연대팀은 '툴립교실'을 통해 확인한 대안적 성소수자 교육운동의 가능성을 '무지개교실(가칭)'을 통해 확장해 가고자 한다.

## 왜 노동·정치·사람인가?

하지만 왜 하필이면, '노동·정치·사람'에서 성소수자 교육운동의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인가? 물론 이는 노동·정치·사람과 청년연대팀 속에도 성소수자 청(소)년 당사자가 활동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 너머의 분명한 당위 역시 존재한다.

오늘날의 운동사회를 들여다 보자. 사람들은 정치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사이에 경계를 지어 각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시민사회운동 속 각자의 의제, 예를 들면 젠더 문제, 인종 문제, 장애 문제 등 여러 관심사를 갖는 운동들에 '부문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새로운 구분을 또다시 만들어 내었다. 자기의 운동과 남의 운동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연대'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빈곤해지고 말았다. 여러 운동들이 공통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같이 맞서 싸운다기보다는, 그저 다른 운동이 하는 주장이 '맞는 말'이라 공감하고, 집회시위가 열리면 깃발을 들고 나가 함께 있어주다 돌아오는 것에 그치는 것 이상을 오랫동안 해내지 못했다.

진보정치 역시 길을 잃었다. 옛 진보정치가 오늘날 새롭게 제기된 문제(여성, 성소수자, 환경 문제 등)와 기존 운동들을 제대로 이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등 다양한 의제가 유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진보정치운동의 쇄신이 필요했다. 그러나 진보정치운동들은 나타난 운동들과 거리를 두고, 이것들을 '남의 일'로 보거나 '존중'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자들도 진보정치운동과 연결될 이유를 체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립되고 파편화된 여러 운동들, 그리고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적을 마주 보고 있다. 우선 인간 개인은 하나만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여러가지의 교차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당장 우리 자신의 경험들을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성소수자 치고 노동에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는 이 있던가. 학교와 일터에서 성소수자가 단속되면 학교와 일터에서 성에 따라, 또 노동이 권력에 의해 단속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한편 다른 문제도 있다. 이것은 예컨대 자본주의, 그리고 1980년대 이후로는 신자유주의로 이름을 바꾼 사회 체제 속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사회 속에서, 운동과 의제 역시도 상품으로 전락하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의제가 인기가 있을 때에는 '자본이 허락하는 데까지' 미디어와 담론을 통해 유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사라져 '팔리지 못해' 무너지는 일들도 벌어진다. 가장 효율적이고 쉬워 보이는 의회 중심 제도권 정치에서,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인권 의제를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확' 한번 다루고 마는 정치.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의회에서 얻은 권력, 미디어와 담론에서 유행한 인권 의제가 바람처럼 쓸려 나가는 상황을 보자. 그 속에서 여러 인권운동은 관심을 통해 자본과 힘이 집중되길 기다리거나, 기다리다 지쳐 무너지는 상황에 도달한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관심도 받지 못해 각개격파 당하는 '부문운동'들의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운동과 소수자 주체 개인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적, 사회 체제에 맞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정치·사람은 효율과 경쟁을 강요하며 사람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 속, 여기에 맞서야 할 진보정당운동이 표류하는 상황 속에서, 생활의 무대가 되는 지역 거점들을 비롯한 현장으로 돌아가 소외된 주체들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정치'가 발견하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를 이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낸다. 노동·정치·사람이 은평과 영등포 등에서 펼쳐고 있는 지역정당운동이 대표적인 예시다. 마찬가지로 여러 운동들이, 특히 소수자 운동이 관심 받고 또 각자 부수지는 일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 자본과 권력이 관심이 갖지 않는 아래에서부터 노동과 진보 그리고 성해방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튼튼한 틀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즉, 단순히 소수자를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닌, 노동자 진보 정치의 미래를 고민한 판단이다.

노동·정치·사람 청년연대팀은 여성, 성소수자, 인권, 청년, 대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청년 활동가들이 꾸린

팀이다. 소수자, 청년운동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 안의 여러 한계를 느꼈다. 그리고 이 한계들이 각 운동의 문제가 아닌 관통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진보 전반의 문제로 넓혀, 노동-소수자-지역-시민사회-인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운동을 만들지 고민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운동의 문제를 뛰어넘어보는 실험 공간으로, 동시에 당사자 바로 곁에서 그들의 절박한 삶에 연대하는 운동으로, 성소수자 청(소)년 주체와 이들의 생활거점들을 연결하고, 운동적 목표를 새롭게 그려가는 기획으로서 '무지개교실'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